

- 목차 -

여는 말 : 1p

MEMO : 2p

시선공통모의고사 2회 총평과 해설 : 3p~

- 여는 말

안녕하세요. 시선국어연구소입니다. 2027학년도 시선공통모의고사는 다음과 같은 '시선'을 갖고 제작되었습니다.

1) 콘텐츠 소개와 배포 일정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시선 '공통' 모의고사입니다. 선택과목을 제외한 공통과목만 포함된 모의고사이며, 과년도 저희 팀에서 출제한 지문과 신규 제작한 지문을 함께 활용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 모의고사는 '월간지'의 일부입니다. 저희 월간지는

1주차 : 모의고사 배포, 2주차 : 배포 지문 분석, 3주차 : EBS 연계 자료, 4주차 : EBS 연계 문제 배포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천하는 활용 방향은 '결들임'입니다. 기존에 듣던 커리큘럼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자료를 결들여서 쓰실 수 있게끔, 없으신 분들께는 저희 자료가 보탬이 되게끔 구성하고 집필하였습니다. 자신만의 루틴대로 공부하며 저희 자료를 참고 자료로 사용하신다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한 배포 자료는 모두 시선국어연구소 오르비에서 무료로 배포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매주 금요일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2) 2027학년도 6월 모의평가

2027학년도 6월 모의평가 국어는 해볼 만한 시험이었으나, 모든 시험이 그렇듯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징으로는 3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선택 과목 간의 동일한 1등급 컷'입니다. 선택 과목 체제가 도입된 이후로, 화법과 작문 선택자와 언어와 매체 선택자의 1등급 컷라인이 같은 최초의 시험입니다. 평가원에서 계속해서 1컷을 맞추려는 시도를 하실 거 같으나, 9평과 수능도 이렇게 출제된다는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6평을 기점으로 선택 과목 변경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선택 과목 간의 유불리가 아닌, 6평에서 내가 몇 문제를 맞췄고 얼마나 공부했는지를 고려하여 변경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두 번째로 '기본기만 묻고 있는 언매'입니다. 이번 언어와 매체 시험지에서 두 문제 이상 틀리셨다면 선택 과목 변경을 고민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만약 이번 시험에서 두 문제 이상 틀렸는데 언어와 매체를 선택할 거라면, **품사와 단어 그리고 문장 등에 대한 개념 공부를 다시 꼼꼼히 하고 문제 풀이를 통해 빈 구멍을 꼼꼼히 메우시길 권합니다.** 한편 화법과 작문은 문제의 형식이나 배치가 조금 변화하였지만 묻고 있는 내용은 결국 기출과 동일하며, 난이도는 작년 수능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쉬운 수준으로 출제되었습니다. 다만, 언어와 매체에서 문법 파트가 다소 쉽게 출제되어서 오답률이 매우 낮았기에, 또한 공통 과목이 다소 평이하게 출제되었기에 두 과목 간의 1등급 컷이 차이가 없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결국 변별 지점은 독서이다.'입니다. 공통 과목이 모두 평이하게 출제되었으며, 특히 문학의 난도가 낮았기에 독서에서 풀이 시간을 많이 벌 수 있었을 거 같습니다. 다만, 22번의 오답률이 높게 관찰되는데, 틀리셨다면 **기출 분석을 통해 유형에 대한 풀이법을** 뒤보시길 권합니다. 물론 9평과 수능도 이번 시험처럼 출제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난도를 더 높여서 출제될 거라는 게 합리적인 예측이죠. 따라서 **문학과 독서 둘 다 어려운 시험을 대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꾸준히 국어 공부를 게을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3) 7, 8월은 고지전이다.

7, 8월은 6평이 끝났다는 것과 여름방학이 겹쳐있는 시기입니다. 잠시 쉬거나 스트레스를 푸는 것은 좋지만, 6평 성적이나 더운 날씨를 이유로 퍼지면 안되는 시기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아직 충분히 다른 사람을 추월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건투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시선국어연구소 드림.

- MEMO

출제자의 시선

2027학년도 시선공통모의고사 2회차 빠른 정답

공통 과목					
번호	정답	배점	번호	정답	배점
1	④	2	18	①	2
2	③	2	19	④	2
3	⑤	3	20	②	2
4	④	2	21	⑤	3
5	③	2	22	④	2
6	②	2	23	⑤	3
7	③	2	24	③	2
8	④	3	25	③	2
9	②	2	26	⑤	2
10	①	2	27	④	2
11	③	2	28	②	2
12	③	2	29	③	2
13	④	3	30	③	3
14	②	2	31	①	2
15	⑤	2	32	④	2
16	①	3	33	④	2
17	⑤	2	34	③	3

시선공통모의고사 2회차 POINT

이번 시험지의 컨셉은 ‘문학에 대한 연계 학습’입니다.

- 독서

주제 통합은 인문 제제로 출제하여 학자의 사상과 그에 대한 비판을 지문에 담았으며, 사상과 주장의 요소와 논점을 정리할 것을 요구하는 지문이었습니다.

기술 지문은 PIR이라는 기술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술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풀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이 기술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예를 떠올리며 읽었다면 좀 더 읽기 수월했을 거 같습니다.

사회 지문은 여러 가지 법에 관한 내용으로 글을 구성하여 법의 대상이나 요건, 결과를 정리하여 읽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문학

고전소설은 수능완성에서 「운영진」을 연계하였지만 수능 완성과 다른 대목을 발췌하여 구성하여서 해당 작품에 대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갈래 복합에서는 신경림의 「산에 대하여」와 한용운의 「낙원은 가시덤불에서」를 수능특강에서 연계하여, 학습하실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고전시가에서는 윤선도의 「만흥」과 작자 미상의 사설시조를

수능특강에서 연계하였습니다. 사실 시조를 연계하는 최근 트렌드를 반영하여 출제하였으며, EBS의 주요 작품에 대한 학습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벌써 6월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독서는 골고루 난도가 있게 출제하였으며, 문학도 마냥 쉽지는 않도록 출제한 시험지입니다. 틀리셨다고 자책하실 필요는 없을 거 같습니다.

시선공통모의고사

2회차 해설

[1~3] 독서론

독서에 대한 인지적 관점과 사회 구성주의 관점
- EBS 수능특강 독서 296P 연계

1.

답 ④

정답

④: 윗글의 내용에 따르면, 독서에 대한 인지적 관점에서는 독자가 자신의 지식이나 기호 표시 행위 등을 통해 글의 의미를 이해한다고 보고, 사회 구성주의 관점에서는 독자가 공동체가 공유하는 맥락 속에서 글의 내용을 수용함으로써 글의 의미가 구성된다고 본다. 이는 독자가 자신이 속한 담화 공동체의 가치관을 고수함으로써 글의 의미가 파악된다는 선지의 진술과 거리가 멀므로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해설

- ①: 독서에 대한 인지적 관점에 따르면 독자는 글의 정보를 자신의 도식과 연결하여 글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②: 독서에 대한 인지적 관점에 따르면 독자가 밑줄 긋거나 기호 표시 등으로 글에서 중요한 정보를 선별하는 것은 글을 파악할 때 부담을 덜기 위한 전략이다.
- ③: 사회 구성주의 관점에 따르면 필자는 독자가 속한 담화 공동체의 관습을 고려하여 글을 쓸 수 있다. 이때 독자와 필자가 같은 담화 공동체에 속할 수 있으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⑤: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담화 공동체의 맥락과 전체를 고려하더라도 능동적으로 정보를 처리할 도식이 부재한다면 글의 타당한 의미에 도달하기 어렵다. 이는 글의 타당한 의미의 도달에 능동적으로 정보를 처리할 도식과 담화 공동체의 맥락과 전체 고려가 모두 요구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2.

답 ③

정답

③: ㉠은 인지적 관점으로, 인지적 관점은 사회 구성주의 관점과 달리 독서가 이루어지는 사회적 맥락에 주목하지 않으며, 개인의 독서 과정을 강조한다.

오답해설

- ①: ㉠은 독자가 자신의 지식 정보를 활용하여 글의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에 주목하는데, 이때 수동성을 강조한다고 보기엔 어렵다.
- ②: ㉡에서 글의 의미는 개인의 지식을 통해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담화 공동체의 관습에 의해 수용되며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지식을 통해서 구성되는 글의 의미를 배제한다고 보기 어렵다.
- ④: ㉢은 독자가 속한 담화 공동체에 주목하여 독서를 설명하는 관점이지, 독자를 다양한 집단으로 분류하는 관점은 아니다.

⑤: ㉠은 글에 담긴 필자의 의도를 간과하는 관점이 아니다.

3.

답 ⑤

정답

⑤: A의 발제 이후 동아리 내에서 새로운 토론 방식이 생긴 것은 환경 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지, 성공적인 독서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오답해설

①: A가 책을 읽으며 핵심 주장에 밑줄을 긋는 것은 인지적 관점에 따르면 정보를 구조화하여 글을 파악할 때 부담을 덜기 위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②: A가 발제문을 요약하기 위하여 밑줄을 그은 핵심 주장들을 자신의 배경 지식과 연결한 것은 인지적 관점에 따르면 도식을 활용하여 정보를 능동적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③: A가 동아리의 가치관을 고려하여 책을 해석한 것은 사회 구성주의 관점에 따르면 담화 공동체의 전제를 고려하여 이를 바탕으로 글을 수용한 것이다.

④: A가 책의 내용을 이전에 읽은 글의 내용과 연결 지어 이해한 것은 상호 텍스트성을 바탕으로 다른 글과 책의 내용을 연결 지어 파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9] 인문

(가): 아도르노의 부정변증법

(나): 아도르노의 부정변증법에 대한 비판

4.

답 ④

정답

④: (가)의 1문단에 따르면, 사회적 비판 이론은 근대적 이성을 이용한 권위주의적 사회를 비판한다고 서술되어 있으며, 4문단에서는 부정변증법의 역동적 측면을 강조하며 그 의미를 밝히고 있다. (나)의 1문단에서도 부정변증법이 기존의 권위주의적 사회의 부작용을 탐색하는 데에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두 글 모두 기존의 권위주의적 세계를 비판하고 있으며, 부정변증법의 의미를 언급하고 있다.

오답해설

①: (가)의 1문단에 따르면 근대적 이성은 다양화가 아닌 보편화와 획일화를 통해 개인을 억압한다. 따라서 근대적 이성의 다양화를 통한 권력 관계와 억압 구조는 확인할 수 있다.

②: (가)의 2문단에 따르면 새로운 부정이 도입되었으나 합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긍정적 함으로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나)의 3문단에 따르면 부정변증법은 수립적 동력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부정변증법은 수립적 동력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⑤: (나)는 부정변증법의 실천적 한계를 지적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는다.

5.

답 ③

정답

③: (가)의 4문단에 따르면 부정변증법은 완결된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완결된 진리에 예속되는 것을 경계한다. 따라서 부정변증법이 완결된 진리로의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는 설명은 옳지 않다.

오답해설

①: (가)의 3문단에 따르면 부정변증법은 일직선적 발전 논리를 거부하며, 부정의 개념을 재규정하는 것과 부정이 종합되는 것을 거부하는 유보적 태도를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②: (가)의 3문단에서 부정은 함으로 종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④: (가)의 1문단과 4문단에 따르면 부정변증법은 기존의 억압적 방식을 폭로하고, 근대적 이성의 획일성을 의심하는 수단이다.

⑤: (가)의 4문단에서 부정변증법은 지속적으로 개념과 현실의 차이를 드러내며 실제 현실의 다양성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6.

답 ②

정답

②: (나)의 2문단에 따르면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언어와 개념이 필수적이다. 언어와 세상, 즉 개념과 대상의 불일치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므로 이를 끝없이 유보할 수 없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오답해설

①: 아도르노는 언어와 개념의 대안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③: 아도르노 또한 차이와 다양성을 추구하였지만, 이러한 차이와 다양성 자체가 인간의 현실 개입과 소통을 방해한다고는 볼 수 없다. 현실 개입과 소통을 어렵게 하는 것은 아도르노가 차이와 다양성을 추구하는 방법에서 기인하였다.

④: ㉠은 아도르노의 견해를 비판하는 것이므로, 언어와 개념의 근대적 사용을 재고한다는 아도르노와 동일한 견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기존 변증법은 부정을 함으로 종합하는 논리를 가지므로, 부정변증법이 기존 변증법의 논리를 그대로 따른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7.

답 ③

정답

③: (가)의 아도르노는 기존 변증법이 근대적 이성을 옹호하고 강화한다고 비판하며 기존 변증법의 일직선적 발전 논리를 거부하는 것을 권력 관계에 예속되는 것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한다. (나)의 글쓴이 또한 아도르노의 '부정'이 기존 권위와 구조를 무너뜨릴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므로 이는 아도르노와 (나)의 글쓴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진술로 볼 수 있다.

오답해설

①: (가)의 아도르노는 부정변증법이 사유의 틀임을 밝혔지만 새로운 사회적 기반을 세우는 방법에 대한 견해는 밝히지 않았다. (나)의 글쓴이는 부정변증법의 수립적 동력의 부재를 지적하고 있기에 적절하지 않다.

②: (가)의 아도르노는 부정변증법의 한계를 밝히지 않았으며, (나)의 글쓴이는 부정변증법의 새로운 '부정'의 도입만으로는 미래적 전망을 제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가)의 아도르노와 (나)의 글쓴이 모두 전위 예술이 대중 문화를 대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지 않는다.

⑤: (가)의 아도르노와 (나)의 글쓴이 모두 부정변증법이 근대적 이성과 기존의 변증법으로 대표되는 일직선적 발전 논리를 해체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이 과정에서 개념과 대상의 대립이 해소되지 않다고 보지 않으며, 개념과 대상이 대립하고 불일치하게 된다고 본다.

8.

답 ④

정답

④: 언어와 개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관점에 따르면 개인은 개념이 대상을 단순화하는 과정 없이 현실에 개입하거나 소통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한 시도로, 입체파의 방식은 소통의 다양성을 간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오답해설

①: 근대적 이성의 억압을 문제 삼는 관점은 권위주의를 거부하고 해체하는 방향을 추구한다. 따라서 전위 예술은 기존의 합리성을 거부하며, 권위주의의 탈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수 있다.

②: 수립적 동력의 부재를 우려하는 관점은 대안적 문화 형성을 강조하며, 전위 예술만으로는 한계를 가진다고 평가한다. 또한 수립적 동력의 부재는 예술의 위계를 포괄하는 실천적 전략이 부족하다는 것과 맞닿아 있으므로, 전위 예술을 넘은 대안적 문화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반응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③: 진리의 완결을 부정하고 해방을 추구하는 관점은 기존 질서의 파괴와 새로운 사고 방식을 추구한다. <보기>에 따르면 전위 예술은 새로움과 혁신을

추구하며 기존의 합리성을 거부하고 규범을 파괴하는 예술이다. 진리의 완결을 부정하고 해방을 추구하는 관점은 규범을 파괴하는 사유의 틀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 ⑤: 현실의 다층적·복합적 측면을 인정하는 관점은 근대적 이성의 확실성을 해체하는 방향을 지향한다. 다다이즘의 무의미한 의미 창출 과정은 기존 합리성을 거부하고 규범을 파괴하는 것이므로, 이를 근대적 이성의 확실성을 해체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다.

9.

답 ②

정답

- ②: ①의 '뒷받침하다'는 '지지하고 돕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잘못된 것이나 부족한 것 따위를 고쳐 좋게 만든다.'의 의미를 가진 '개선한다'로 바꾸어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해설

- ①: ①의 '일컫다'는 '가리켜 말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어떤 대상을 가리켜 이른다.'의 의미를 가진 '지칭한다'로 바꾸어 쓰는 것은 적절하다.
- ③: ③의 '열다'는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영역, 운명, 진로 따위를 처음으로 열어 나간다.'의 의미를 가진 '개척하다'로 바꾸어 쓰는 것은 적절하다.
- ④: ④의 '이끌다'는 '목적하는 곳으로 바로 가도록 같이 가면서 따라오게 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판단이나 결론 따위를 이끌어 내어'의 의미를 가진 '도출해'로 바꾸어 쓰는 것은 적절하다.
- ⑤: ⑤의 '나누다'는 '성질 따위를 기준으로 구별하거나 달리 속하게 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를 몇 개로 갈라 나누다.'의 의미를 가진 '구분하고'로 바꾸어 쓰는 것은 적절하다.

[10~13] 기술 PIR 기술

10.

답 ①

정답

- ①: 1문단에 따르면 물체의 온도가 낮을수록 더 긴 파장을 방출하기에, 파장이 짧을수록 물체의 온도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임계값을 초과해야 감지가 이루어지므로 목표 대상의 온도가 높다면 감지가 용이할 수 있다.

오답해설

- ②: 2문단에 따르면 초전소자에 적외선이 입사되면 전압이 발생하며, 이는 내부 회로를 거쳐 신호로 변환된다.
- ③: 6문단에 따르면 PIR은 온도가 내려가더라도 움직임을 감지하는 원리로 동작하기 때문에 인체의 동작을 감지할 수 있다.
- ④: 4문단에 따르면 프리넬 렌즈는 감지 범위를 확장하며, 이를 통해 초전소자가 넓은 각도에서 적외선을 감지하도록 돕는다.
- ⑤: PIR은 온도를 기준으로 움직임을 판단하므로 목표 대상과 동일한 온도를 가진 물체가 감지 영역을 지나가면 PIR이 동작을 감지할 수 있다.

11.

답 ③

정답

- ③: 3문단에 따르면 초전소자는 적외선을 매개로 동작하기 때문에 감지 범위가 좁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PIR에 프리넬 렌즈를 장착하여 초전소자의 감지 범위를 확장하며, 감지 영역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돕는다.

오답해설

- ①: 두 초전소자가 반대 위상으로 연결되어 있어 동일한 적외선이 입사될 경우 양과 음의 신호가 상쇄되지만, 2문단에 따르면 이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전압이 신호로 변환되어 차동 그래프에 반영되는 과정이다.
- ②: 4문단에 따르면 PIR이 벽면에 설치되는 경우 프리넬 렌즈는 전방의 180°를

감지하도록 장착된다.

- ④: 문단에 따르면 프리넬 렌즈는 적외선을 모아 초전소자로 집중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적외선을 방사하는 기능은 하지 않는다.
- ⑤: 4문단에 따르면 프리넬 렌즈는 두 개의 초전소자 각각에 개별적으로 장착되지 않고 초전소자가 위치한 PIR 전면부에 모두 장착된다.

12.

답 ③

정답

- ③: 3문단에 따르면 물체가 감지 영역을 지나가는 방향에 따라 차동 그래프의 변동 패턴이 결정된다. 물체가 음의 초전소자 감지 영역에서 양의 초전소자 감지 영역으로 이동할 경우, 그래프는 먼저 하강한 뒤 상승하는 양상을 보인다.

오답해설

- ①: 2문단에서 차동 그래프는 두 초전소자가 내보낸 신호를 순서대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두 신호가 결합되어 변화하는 양상을 종합적으로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물체가 양의 초전소자 영역에서 멈추더라도 해당 초전소자는 입사된 적외선으로 인하여 신호가 발생할 것이므로 그래프는 상승하는 양상을 보일 것이다.
- ④: 배경 물체의 온도와 목표 물체의 온도 차이가 작으면 배경 물체에서 방사되는 적외선이 지속적으로 초전소자에 입사될 것이다. 이로 인해 목표 물체에서 방사되는 적외선이 초전소자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기에 그래프의 변화 폭이 작아질 것이며, 반대로 차이가 클수록 그래프의 변화 폭도 커진다.
- ⑤: 3문단에서 거의 동일한 온도 변화가 생기면 그래프가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목표 물체와 배경 물체의 온도 차이가 현저하다면 차동 그래프는 목표 물체의 적외선을 원활히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13.

답 ④

정답

- ④: A의 온도가 30°C로 상승한 후 10°C로 하강한 직후 B 또한 동일하게 변화하였다면 차동 그래프는 상승한 후 하강하는 양상을 띠었을 것이며, 이는 인간의 평균 체온과 가까우므로 PIR은 동작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것이다.

오답해설

- ①: 5문단에서 외부의 강한 자외선이 센서에 과부하를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동작 감지는 차동 그래프의 변화폭을 기준으로 동작을 판단하므로 출구에서 입구로 이동하는 동작 또한 감지될 것이다.
- ③: 배경 물체의 온도가 목표 물체의 온도보다 현저히 낮다면 차동 그래프의 변화 폭이 커질 것이므로 PIR은 동작을 원활히 감지할 수 있다.
- ⑤: 배경 물체의 온도가 목표 물체의 온도와 비슷한 온도라면 사람으로부터 방사된 적외선을 센서가 적절하게 감지하지 못할 것이다.

[14~17] 사회

농지법, 원산지표기법, 식품위생법

14.

답 ②

정답

- ②: 농지를 위탁경영하는 것은 허가받지 않을 경우 금지되어 있지만, 이 경우 농지 처분 명령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임대나 위탁 경영을 위한 일정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거나 제한하는 것이다. 처분 명령은 비농업인이 경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내려질 수 있는 조치이다.

오답해설

- ①: 비농업인은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사전에 농지 이용 계획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 ③: 거래명세서의 보관 의무는 원산지표시의 사후 감독을 용이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 ④: 온라인 쇼핑몰에서 축산물의 원산지를 기재하지 않으면 시정 명령과 같은 행정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고 하였다.
- ⑤: 급식소 영업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허가 영업은 행정 제재 대상이라고 하였다.

15.

답 ⑤

정답

- ⑤: 원산지를 속여 광고하는 행위는 원산지표시법(㉠)과 허위 광고로 인해 식품위생법(㉡) 모두를 위반하는 것이다.

오답해설

- ①: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더라도, 거짓 표시는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하였다.
- ②: 포상금 제도는 ㉠(원산지표시법)에서 언급된 제도이지, ㉡(식품위생법)의 관리 방식이 아니다.
- ③: ㉠(원산지표시법)은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는 것 자체가 위반이 아니라 허위 표시나 누락이 위반이다. 오히려 ㉡(식품위생법)이 준수를 위해 관청이 필요하다.
- ④: 형사처벌은 ㉠과 ㉡ 둘 다 가능하다고 하였다.

16.

답 ①

정답

- ①: 원산지표시법상 매장도 원산지 표시의 의무 주체이며, 본사가 제공한 식재료의 원산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도 매장은 표시 위반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으므로 해당 사안의 행정제재인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오답해설

- ②: 원산지 허위 표기는 원산지표시법 위반이며 식품위생법 위반이 아니다.
- ③: 사업장 명칭 공표는 원산지표시법이 반복적으로 위반된 것이 파악되었을 경우의 제재이다.
- ④: 원산지 허위 광고는 강제처분 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 ⑤: 이물질이 유해 물질이어도, B 본사가 유해 물질을 의도적으로 유통한 것인지, A 매장의 과실로 유해 물질이 유입된 것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17.

답 ⑤

정답

- ⑤: ㉠ '엄격히'는 문맥상 엄격한 규제를 의미하므로 '폭넓게'로 바꿔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해설

- ①: ㉠ '강화'는 '높이고'로 바꿔 쓸 수 있다.
- ②: ㉡ '본연의'는 '올바른'으로 바꿔 쓸 수 있다.
- ③: ㉢ '이행하지'는 '다하지'로 바꿔 쓸 수 있다.
- ④: ㉣ '누락'은 '빠뜨리고'로 바꿔 쓸 수 있다.

[18~21] 고전소설

작자 미상, 「운영전」

- EBS 수능완성 172P 연계

18.

답 ①

정답

- ①: 윗글에서 운영은 옥녀의 말에 '산 사람도 아니고 중도 아니면 이 깊은 궁에 갇혔으니, 정말로 이른바 장신궁이다.'라 대답했다. 이는 산에 사는 사

람과 중처럼 깊은 궁에 갇혔다고 말한 것이고, 이 말을 듣자 궁인들은 모두 이를 자탄하고 울적하게 여겼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오답해설

- ②: 윗글에서 진사는 편지를 받고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나갔다, 하지만 자란은 처량하여 차마 볼 수 없어 몸을 숨기고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으므로 자란은 진사가 울며 나가는 모습을 쳐다보며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③: 진사는 상대의 질문에 다른 말은 하지 않고, 특에게 재보를 잘 지키고 있는지 물었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④: 진사에게 특은 강적에게 습격받았다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고, 진사가 이에 대해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장면은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⑤: 소옥은 대군에게 자신은 자란의 청에 따랐으며 운영의 죄는 자신에게 있고 운영에게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소옥이 운영의 죄가 운영이 아닌 자란에게 있다고 대군에게 아뢰었다는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19.

답 ④

정답

- ④: ㉠에서 금팔찌 한 쌍과 운남 보경 하나가 발견된 것은 대군에게 보고되어, ㉡에서 대군이 서궁 궁녀 다섯에게 벌을 내리게 된다. 따라서 ㉠에서 물건이 발견된 것은 ㉡에서 일어난 사건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오답해설

- ①: ㉠에서 모략이 세워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②: ㉠에서 진사는 특의 소행에 대한 전말을 깨닫게 된다. 하지만, ㉡에서 처벌되는 대상은 그 사건의 주동자가 아니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③: ㉠은 대군이 의도를 가지고 서궁 궁녀 다섯을 모은 장소이나, ㉡는 진사가 특의 소행을 알고 방문하였으므로 의도를 가지고 방문한 곳이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⑤: ㉠에서 밝혀진 사실은 특의 집에 팔찌 한 쌍과 운남 보경 하나가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에서 궁녀들은 이에 대해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의 횡절에 대해 해명하고 있으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20.

답 ②

정답

- ②: [A]의 글쓴이는 받는 이에게 '저를 가슴에 품어 두시고 상심치 마시옵소서.'라 전하고 있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오답해설

- ①: [A]의 글쓴이는 받는 이에게 '바다 같이 크고 넓은 정은 다하지 못하였나이다.'라 전하고 있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③: [A]의 글쓴이는 바다 같이 크고 넓은 정을 다하지 못한 것이 불행하다고 말하고 있을 뿐, 하룻밤의 즐거움을 나누었던 것은 다행이라 전하고 있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④: [A]의 글쓴이는 받는 이에게 자신의 의복과 보화를 모두 팔아서 부처님께 바치어 미진한 연분을 후세에 다시 잇게 하여 달라고 전하고 있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⑤: [A]의 글쓴이는 받는 이가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르고 후세에 이름을 날리시어 부모님을 기쁘게 해달라 전한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21.

답 ⑤

정답

- ⑤: 뜰에 모인 서궁 궁녀 다섯에는 운영이 포함되어 있다. 은섬이 초사를 올리고 대군이 이를 보는 장면은 뜰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여 진행되고 있으므로 서술자인 운영이 당시에 직접 보지 못한 장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술하지

않는다는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해설

- ①: '유감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기도' 하다는 것의 대상은 무녀이다. 즉, 이는 무녀가 유감으로 여겼기에 그랬을 것 같다고 추측하는 진술이다. 또한 위의 '저'는 운영 자신을 지칭하는 말이기 때문에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②: 특이 '그 재보는 하늘과 나의 것이겠지'라 한 것은 특의 생각이며 자신이 속으로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서술자인 운영이 인물의 속마음을 서술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③: 특이 벽을 향하여 남몰래 웃은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사람들은 까닭을 알 수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당시 상황에 대하여 서술자인 운영의 부가적인 설명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④: 진사가 특에게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는 부분에서 운영은 당시에 직접 그 장면을 직접 보지 못하였고, 진사가 특에게 해준 따뜻한 말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서술자인 운영이 당시에 직접 보지 못한 장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술하지 않는 모습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22~26] 갈래복합

(가) 신경림, 「산에 대하여」 - EBS 수특 273P 연계

(나) 한용운, 「낙원은 가시덤불에서」 - EBS 수특 273P 연계

(다) 안재진, 「이별 연습」

22.

답 ④

정답

④: (나)와 (다)에서는 모두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

오답해설

- ①: (가)는 산에 인격을 부여하여 산의 행동을 통해 그것이 지닌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고통의 가시덤불'과 '환희의 낙원'이라는 대비되는 시어를 통해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③: (다)는 화자의 어머니의 무덤에서의 경험을 서술하여 그에 관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는 '사람이 다 크고 잘난 것만 아니듯/다 외치며 우뚝 서 있는 것이 아니듯'에서, (다)는 '세월을 잃어가고, 젊음을 잃어가고, 가슴을 뜨겁게 했던 사람들을 잃어가고,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떠날 것이라는 초조감 때문일까.'와 '언제쯤이면 사람이 없어도 외롭지 않고, 어둠 속에 갇혀 있어도 불안하지 않고,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어도 당당할 수 있고, 사랑이니 영광이니 행복이니 하는 것들을 한갓 휴지조각처럼 무심히 던질 수 있을까'에서,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리듬감을 부여하고 있다.

23.

답 ⑤

정답

⑤: (나)에서 '고통'의 가시덤불과 '환희'의 낙원을 언급한 화자가 님을 떠난 자신이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고통을 이겨내고 환희를 맞이하기 위하여 님을 떠나갔지만 나는 행복하다는 말이다. 이때 화자의 태도를 고통 후의 행복을 맞이하는 것으로 인해 행복하다는 것이지, 행복을 맞이하기 위한 태도라고 보기에는 거리가 있다. 또한 (다)에서 '어머니의 정지된 세월이 무척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죽음을 수용할 힘을 얻은 것이 아니라, 화자가 특별한 장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머니의 죽음에 관해 고찰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해설

①: (나)에서 '매화나무 가지'와 '눈 위'에 오는 '봄기운'이 아름다운 것은 겨울에서 봄이 되는 계절의 변화와 함께 변하는 자연물의 모습을 목격했던 경험을 제시하는 것이다.

- ②: (다)의 화자는 '어머니의 무덤'에 방문하여서 이전에는 어머니의 모습을 가련하다고 느꼈던 것과 달리, 어머니의 모습을 행복한 모습으로 느끼고 있다. 그러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③: (나)에서 '가을바람의 꿈을 따라 사라진 후 '기억'에만 남아 있는 '지난여름의' 녹음은 단풍이 노래도 부르고 울음도 우는 자연의 인생을 주는 존재이므로, 자연이 순환한다는 인식 속에서 자연이 변화할 수 있었던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다.
- ④: (다)에서 몇 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나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서서히; 버리는 연습'을 하는 것은 자신이 언젠가 죽음을 맞이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있는 것이다.

24.

답 ③

정답

③: ㉞은 낮은 산이 눈개비나무나 찰피나무 등의 자연과 어우러지며 누릴 수 있는 대상이다. 하지만, 낮은 산이 토속적 존재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해설

- ①: ㉠은 험하고 가파른 산자락에 있다가 슬그머니 빠져 내려온 어떤 산이 부러운 듯이 구경하고 있는 대상이다. 따라서 ㉠은 이러한 존재가 선망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 ②: ㉡은 높은 산을 오를 때 고생을 덜어주는 존재인 어떤 산이 남의 눈을 꺼리는 커플에게 되어주는 은신처이다.
- ④: ㉢은 마을과 가까이 있는 낮은 산만이 아는 대상이다.
- ⑤: ㉣은 바람을 어깨로 맞받아치는 산의 행동이므로 존재감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으며, 모든 산이 이것을 하지는 않는다.

25.

답 ③

정답

③: '노래도 부르고 울음도 읊니다'라는 것은 '단풍'의 행동을 통해 대상이 지닌 다양한 면모를 드러내는 것이지, 외면과 내면이 다를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오답해설

- ①: '쇠잔한 눈이 주는 줄을 아십니까'라는 것은 모든 꽃의 죽음을 가지고 다니는 쇠잔한 눈이 알 수 없는 향기를 주기도 한다는 인식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때 모든 꽃의 죽음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꽃을 가져간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②: '단풍은 곱기도 합니다'라는 것은, 구름이 가늘고 시냇물은 열고 바위도 괴리한 주변의 쇠약한 자연물과 다르게 단풍만 실컷 붉게 있으며 이것이 곱다는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 ④: 일경초가 장륙금신이 되고, 장륙금신이 다시 일경초가 된다는 것은 사물이 고정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⑤: 천지와 만유는 다양한 모습의 만물을 의미하는 표현인데, 그것이 각각 한 보급자리이고 같은 소조라는 것은 그 근본은 같다는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6.

답 ⑤

정답

⑤: '나'는 자유를 느낄 수 있기에 미련 없이 모든 걸 버릴 수 있는 마음을 키울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은 사랑이니 영광이니 행복이니 하는 것들을 한갓 휴지 조각처럼 무심히 던지기 위해서 이 길을 끊임없이 걸어야 함을 강조한다.

맥락상 '이 길'을 걷는 것은 자유를 느끼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은 모든 것을 '휴지 조각처럼 무심히 던지기' 위해서는 '자유를 느끼는' 행위가 꾸준히 필요함을 서술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자유를 느끼기 위해서 모든 것을 휴지 조각처럼 무심히 던지는 마음이 꾸준히 필요하다는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해설

- ①: '나'는 지금껏 살아오며 어머니에 대한 연민으로 가슴을 앓았는데, 그 아픔의 바닥에는 존재에 대한 애착과 삶의 그늘, 지금쯤이면 기쁨을 찾아드릴 수 있을 것이라는 보상 같은 환상이 깔려 있었다. ㉔는 그 아픔의 바닥에 있는 것들로 인한 '나'의 감정을 드러내는 말이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②: 직전 문장에서 '나'가 지금까지 어머니를 떠올리며 들었던 기분을 서술하고 있었다. 따라서 ㉖는 '나'가 어머니에 대해 '어제' 느낀 감정이 이전까지 느낀 감정들과 다름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③: '새롭게 다가선 어머니의 모습'의 이유에 관하여 '나'는 굳이 따져서 무언가 잃고 있는 자신의 외로움 때문이라 말했다. 또한 직후 ㉘에서 자신이 잃고 있는 것들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④: ㉔의 '그 때'는 '오십대 후반'을 가리킨다. 따라서 ㉔가 '서서히 버리는' 것을 '오십대 후반' 때보다 더 진지하고 절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다는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27~30] 현대소설

주요섭, 「사랑손님과 어머니」

27.

답 ④

정답

- ④: 뒷동산에서 '어머니'는 '나'와 달리 '아무 말씀 없이 가만히 서' 있었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오답해설

- ①: '나'의 아버지는 돌아가셨기에 '아저씨'는 그의 소개로 '나'의 집에서 지내게 될 수 없다. 또한, 누구의 소개로 인해 '나'의 집에 지내게 되었는지 뒷글에서는 명확히 나와있지 않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②: 어느날 '나'가 '아저씨'가 밥 먹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아저씨'가 '나'에게 좋아하는 반찬을 묻자, '나'가 그 질문에 답을 하고 '아저씨'에게 좋아하는 반찬을 물었으므로 선지에 진술된 질문의 순서는 옳지 않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③: 외삼촌은 '나'와 '어머니'와 같이 뒷동산에 가지 않았다.
- ⑤: '어머니'가 달걀장수에게 달걀을 사지 않는다고 하자, '나'는 놀라서 때를 끌려고 했으나 용기가 없어서 그러지 못했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28.

답 ②

정답

- ②: '어머니'는 사랑손님이 삶은 달걀을 제일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전보다 달걀을 많이 사게 되었다. 또한 이것을 사랑손님의 상에 달걀을 놓게 되었다. 따라서 '어머니'가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랑손님을 탐탁지 않게 여긴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해설

- ①: ㉔는 앞선 사랑손님과 나의 대화를 종합하여 어머니에게 전하는 말이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③: ㉘에서 드러나는 공간의 모습은 정거장에 기차가 없는 것이다. 이때, 사랑손님은 기차를 타고 집으로 내려가고자 하고 '어머니'는 정거장이 뻘뻘 내려다보이는 뒷동산에 올라가서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서있으며 후에 기차가 도착하고 출발하는 것을 가만히 바라본다. 이러한 모습은 기차가 없는 정거장의 모습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④: ㉔와 ㉘는 각각 달걀장수의 말과 그에 대한 어머니의 대답이다. 이때, 달걀장수는 어머니가 오늘 달걀을 사지 않으려 한다는 정보를 모르고 '나'의 집에 방문하였다. 따라서 두 인물 간의 정보의 격차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⑤: ㉘에서 어머니는 달걀을 먹는 '나'를 반영하지 않고 발언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들은 '나'는 어머니가 거짓말을 한다고 여기고 있으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29.

답 ③

정답

- ③: 달걀은 '나'와 '사랑손님'이 같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둘을 매개하여 이 말을 들은 '어머니'가 달걀을 많이 사게 되었다. 이는 어머니에게 일어난 변화로 볼 수 있으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오답해설

- ①: 달걀은 '어머니'의 다른 인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드러나지 않는다.
- ②: 달걀은 '나'가 의문을 품는 물건이 아니며, 인물에 대한 낯섦이 드러나지도 않는다.
- ④: '나'의 말을 들은 '어머니'의 반응은 '나'의 집안 형편에 대한 어려움이 드러난다고 볼 수 없다.
- ⑤: '어머니'와 '달걀 장수'의 대화를 통해, '나'와 다른 인물의 갈등이 발생하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다.

30.

답 ③

정답

- ③: ㉘는 서술자가 '나'인 어린아이의 시선에서 어머니가 달걀을 많이 사고 '나'와 '아저씨'에게 삶아서 주는 행동을 묘사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에는 '나'에 대한 사랑손님의 행동이나 감정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독자가 이를 통해 '나'에 대한 사랑손님의 감정을 능동적으로 이해해 볼 수 없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해설

- ①: ㉘에서 서술자인 '나'는 경어체인 '요'를 사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듯이 말함으로써 구어체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경어체와 구어체를 함께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독자는 이에 대해 현실감과 친근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②: ㉘는 서술자가 '나'의 말에 대한 '어머니'의 표정을 묘사한 말이다. 이를 통해 직접적이지 않고 간접적으로 묘사된 '어머니'의 생각을 독자가 능동적으로 해석해볼 수 있으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④: ㉘는 서술자가 기차가 사라질 때까지, 기차 굴뚝의 연기가 하늘 위로 흩어질 때까지 어머니가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말이다. 이러한 어머니의 모습과 '기차 굴뚝의 연기가 흩어질 때까지'라는 시간에 대한 묘사를 함께 생각하면 독자는 작중 상황을 능동적으로 해석해볼 수 있으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⑤: ㉘는 어머니의 얼굴이 새파랗다는 것이며, '나'는 어디 아픈가 하고 생각하고 있다. 이때, 서술자는 '나'이고, 이러한 묘사된 모습을 통해 독자는 상황에 대한 인물의 감정을 어린아이의 시선을 빌려서 바라볼 수 있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31~34] 고전시

(가) 김진형, 「북천가」

(나) 윤선도, 「만홍」 - EBS 수능특강 308P 연계

(다) 작자 미상, 사설 시조 - EBS 수능특강 48P 연계

31.

답 ①

정답

- ①: (가)는 '청산이 글 되어 술잔에 떨어지고/녹수는 그림 되어 종이 위에 단청이라'라는 유사한 형식의 반복을 통해 시 짓고 술 마시는 행위를 통한 흥취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해설

- ②: (나)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물의 심리 변화를 확인할 수 없다.
- ③: (나)는 '반가움이 이려하랴'라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산에 대한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다)에서는 설의적 표현을 확인할 수 없다.
- ④: (가)와 (다)는 모두, 대상을 열거하는 방식을 통해 인물의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와 (나)에서는 음성상징어를 확인할 수 없다.

32.

답 ④

정답

④: [C]에서 ‘먼 산’은 ‘말씀도 웃음도’ 하지 않는 대상이다. 따라서 ‘먼 산’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C]에서 드러나고 있는 반면, 상호작용을 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해설

- ①: [A]에서는 양금을 파한 후 ‘절집’에 도착하여 그곳의 풍경을 보고 느낀 흥취가 드러난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②: [B]에서는 ‘후세’의 남자들에게 ‘남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이 내 노릇’을 하면 상쾌할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③: [C]에서 화자는 잔을 들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러한 반가움은 ‘그리던 입’이 오는 것에 대한 반가움에 비할 바가 아니라 한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⑤: [A]에서 ‘기생’을 다시 못 오도록 하는 것은 그것이 호사스럽기에, 즉 호사롭게 사치하는 부분 같기에 그러하고, [B]에서 화자는 ‘태평’에 놀게 되면 한이 없으며 구할 일도 없이라는 것에서 이는 화자의 이상임과 그것이 실현되었을 때의 소감을 밝힌 것이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33.

답 ④

정답

④: ㉠은 ㉡을 언급하는 화자가 자신이 강산에서 지내는 상황과 관련하여 님군은혜와 비교를 통해 님군 은혜를 강조하는 것에 쓰이는 대상이고, ㉢은 ㉣을 언급하는 화자의 질문으로 인해 진시황이나 계갈량 등을 통해 ㉣을 때우는 일의 어려움을 비교하게 된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오답해설

- ①: ㉠은 화자가 자신이 놓인 상황의 원인이라고 여기지 않는 대상이며, 오히려 그것을 부정하고 ‘님군 은혜’로 인하여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②: ㉢은 이것을 언급하는 화자가 아닌, 그 상대방이 화자에게 내력을 설명하는 대상이다.
- ③: ㉠과 ㉢은 모두, 그것을 언급하는 화자가 처한 상황의 해결책과 관련이 없다.
- ⑤: ㉠은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를 내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것과 관련이 없다. 또한 ㉢은 이별을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를 담고 있기는 하지만, 이 이별이 화자가 처한 상황인지 작품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기 어렵다.

34.

답 ③

정답

③: (가)에서 화자는 ‘어와 김학사야 그릇타 환을 마라/남자의 천고사업 다하고 왔느니라’라고 한다. 맥락상 ‘천고사업’은 자연을 즐기는 삶이 아닌, 사대부로서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는 사대부로서의 자존심을 드러내는 부분이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해설

- ①: (가)에서 화자는 ‘선비’를 데리고 ‘시 짓고 술 마시’고 있다. 이는 유배 중임에도 시를 지으며 술을 마시고 자연을 즐기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주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②: (나)는 ‘강산’에 누운 것은 ‘님군 은혜’임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강호에 노는 것이 자신의 분을 통해서가 아닌 임금의 은혜임을 밝히는 것이다. 또한 화자는 이에 대한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는 자신이 강호에 노는 것은 커다란 은혜를 받은 것이라는 말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자신이 강호에서 노는 것이 자신의 덕이 아닌 ‘님군 은혜’ 덕임을 강조하여 자연을 즐기며 사는 삶에 대한 겸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에서 화자는 ‘고향’의 풍경에 대해 무양하다는 소회를 밝히며 ‘어린’ 것들에 대해 반가움을 드러낸다. 또한 (나)는 ‘내 성’이 게으른 것을 하늘이 알아 강산을 지키라 하였음을 밝히는데, 여기서 화자가 강산을 지키게 된 이유는 ‘내 성’이 게으르기에 하늘이 결정해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인간 만사를 맡지 않고 강산을 지키는 것은 자연에 은거하는 것이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⑤: (가)에서 화자는 선비를 데리고서 시를 짓고 술을 마시고 있다. 그러자 ‘청산이 글 되어 술잔에 떨어지고 / 녹수는 그림 되어 종이 위에 단청이라고 하는데, 이는 풍류를 즐기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나)에서 화자는 ‘하늘’이 자신에게 인간 만사를 맡기지 않고 ‘다만’ ‘강산’을 지키라 하였다고 한다. 어지러운 정치 현실에서

벗어나 자연을 즐기고 있는 화자에게 ‘인간 만사’는 어지러운 정치 현실을 뜻하고, ‘강산’을 지키며 사는 것은 자연을 즐기며 사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화자가 인간 만사를 하나도 맡지 않고 강산에서 사는 것은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배척이라고 볼 수 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선국어연구소 드림